

## 담화분석적 입장에서 고찰한 실생활과 온라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양성의 소통 관행

이소영(서울대)

### 1. 들어가는 말

언어의 사용이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을 특히 성적 구분 내지는 차이에 집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차이를 둘러싼, 그리고 그 차이를 야기하거나 강화하는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상황과 만나게 된다. 여성에 중점을 둔 언어사용관점에서 언어사용을 연구한다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 언어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두 번째로는 이 차이의 사회적 배경 내지 재생산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차별의 결과이거나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사용과 언어정책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연구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의 말하기방식이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 내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사를 주장하기에 적합하지 못하여 여성을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방향과 더불어 세 번째의 연구방향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통, 소위 온라인 소통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소통 환경이 양성의 실생활에서의 소통관행을 강화하거나 변형시키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남녀 양성이 참여한 열 두 개의 상담담화와 인터넷 채팅, 그리고 뉴스 기사를 놓고 벌어진 인터넷 토론방의 토론 내용이다. 이와 함께 10대에서부터 40대에 이르는 약 22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생활 담화와 인터넷 소통에 관해 설문조사한 내용도 함께 연구에 사용하였다.

1) 송경숙(2002, 299-300), Cameron, Deborah(1985, 19-26) 참조.

## 2. 연구의 토대와 소재

Aries(1976/77)는 남성, 여성, 그리고 혼성 소그룹 토론 자료를 토대로 각 그룹에서 나타나는 양성의 특징적인 담화행태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남성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지배적 담화성향에 따라 일종의 서열체계를 만들려는 경향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들은 그룹 전체의 여성들과 협조적이고 평등한 담화를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면서, 남성과 여성의 담화행태의 근본적인 차이로서 영향력행사(Machtausübung)를 들었다. Kotthoff(1984)는 남녀 학생이 각각 서명을 받기 위해 교수와 면담하는 담화를 녹화해서 양성의 담화 전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연구했다. 분석한 결과는, 남학생은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퍼나가지만 여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피력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협력에 강하게 의존하는 담화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방식의 정당성 문제를 접어둔다면, 많은 연구에서 여성은 협력적이고 남성은 지배적인 담화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담화에 있어서 협력이나 지배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면, 더구나 담화상황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맥락이 성적 특이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담화행태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한 이러한 연구는 단편적이고 편향된 자료만을 분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에서는 담화행태 내지 문체는 각 담화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부여된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경우 통상 여성적이라고 분류하는 담화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별 특성을 보이는 담화행태는 성별 차이보다 전문가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중요시 되는 특정 담화에서는 그리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상황성과 유리된 각 성에 특징적 담화행태가 있다는 가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화에서는 여성적 담화태도나 남성적 담화태도라는 개념이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상황과 유리되고 성과 결부된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경향성으로 파

악하고자 한다. 즉 담화참여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담화에 임하고 그 달성을 위해 다른 참여자와 협력하는데, 이 협력의 양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차이는 담화상황이나 담화목적, 담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성과 결부된 절대적인 양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와 연관해서 다양한 온라인 소통의 장, 특히 인터넷 채팅이나 토론방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되는지, 혹은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양상과 함께 이 새로운 소통양식과 양성의 담화적 관행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독일의 남녀 상담자와 남녀내담자의 상담담화, 인터넷 채팅방과 토론방의 담화내용을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 3. 실생활에서의 이성 간 소통장애의 분석

Claudia Schmidt(1988)는 남녀 학생들이 담화상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하는 언어적 행동을 녹음하고 전사한 다음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특징적인 담화행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화자의 경우 청자신호가 매우 잦고 응답 언행을 잘 하며 그것도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여럿이 토론하거나 공동작업 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화자들은 대부분 비응답적인 발화로 일관하며 토론에서도 서로 의견통합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데 치중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담화기여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고 큰 소리로 말하며 반복하거나 남의 말을 끊거나 스스로 담화주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한, 한 마디로 주도적 담화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Zimmerman/West(1975; 115-116)는 남성과 여성 간의 실제대화상황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끊기(Unterbrechung)의 96%는 남성이 야기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sup>2)</sup>

---

2) 남녀 양성이 참여한 담화기록에서 전부 48번의 말끊기가 있었는데 그 중 46번이 남성화자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처럼 담화에서의 남성화자의 특성으로 분류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담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의 발현임을 알 수 있다. 주도적 담화성향을 가진 담화참여자는 담화의 주제를 정하고 세부주제를 조정하며 담화의 세부단계의 구성과 이행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끝맺음을 결정한다. 물론 이 연구결과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참여인 조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며 이후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말 끊기가 특정 성과 결부된 말하기 특성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러 명의 여성 담화참여자와 한 남성 담화참여자가 이끄는 담화 단면인 Text1의 경우, 남성참여자가 담화 전체의 흐름을 끊고, 담화참여자 모두를 상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끔 담화 주제를 바꾸는 이른바 남성 화자에게 전형적인 담화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론담화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바를 남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경청함으로써 서로의 인지적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인지적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력이 주가 되는 대화 목적을 설정하고 또 상대에게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연구방식의 적절성과 협력성 개념의 문제는 잠시 미뤄둔 채로 기존의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담화참여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강한 “협력적”인 담화태도를 가진 여성담화참여자의 경우 이러한 담화에서 남성화자의 말끊기나 주제 바꾸기를 견제할 수 있는 담화전략을 찾기는 힘들다. Text1<sup>3)</sup>에서도 화자p가 부적절한 말끊기와 주제 바꾸기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제재나 불평없이 바뀐 주제로 한동안 담화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녀 양성이 가능한 네 가지 조합으로 참여한 상담담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본고의 “6. 담화전사자료”에 제시하였다.

1) 12개의 독일어 상담담화 분석 결과:

여성상담자와 여성내담자 상담담화 세 개

여성상담자가 여성내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3+0+4=7$ 회

여성내담자가 여성상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4+1+6=11$ 회

여성상담자와 남성내담자 상담담화 세 개

여성상담자가 남성내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0+2+3=5$ 회

남성내담자가 여성상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5+3+1=9$ 회

남성상담자와 여성내담자 상담담화 세 개

남성상담자가 여성내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7+3+8=18$ 회

여성내담자가 남성상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7+0+4=11$ 회

남성상담자와 남성내담자 상담담화 세 개

남성상담자가 남성내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6+4+12=22$ 회

남성내담자가 남성상담자의 말을 끊은 경우  $3+4+2=9$ 회

전부 열 두 개의 담화에서 92회의 말 끊기가 관찰되었다.

이 중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끊은 횟수는 52회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끊은 횟수는 40회였다.

전체적으로 동성끼리 말을 끊은 횟수는 49회, 이성끼리 말을 끊은 횟수는 43회였다. 이성의 말을 끊은 경우, 여성이 남성의 말을 끊은 것은 16회, 남성이 여성의 말을 끊은 것은 27회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주도적 담화태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꼽히는 말 끊기는 내담자보다는 상담자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의해 야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남성이 상담자이건 내담자이건, 그리고 그의 담화상대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반대의 경우에 비해 주도적인 담화행태를 보인다는 것, 그래서 종종 담화진행상의 위기 혹은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하는 두드러지는 담화단면(auffällige Gesprächsausschnitte)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 행해진 담화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이러한 대립은 상대적으로 여성상담자에게서보다 남성상담자에게서 자주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실생활에서 양성이 참여하는 네 가지 담화의 조합 중, 여성 조사자들이 남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논의한 주도적 담화성향의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실례분석에 따르면 풍부한 자료와 타당성 있는 조사,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의 담화행태에 관한 기존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담담화에서도 남녀 상담자의 직업과 성격, 나이 등과 내담자에 따라서 담화태도나 말 끊기 양상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담화행태가 특정 성에 고정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특정 성과 연관된 사회적 관계들이 특정한 담화행태를 만든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담화행태에 있어서 양성이 현상학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차이를 고찰함에 있어서 남성은 주도적이고 여성은 협력적인 경향을 지녔다고 결론짓는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언어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 아닌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따끔한 충고나 방향제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알콜중독자의 경우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그의 말을 들어만 주는 것이 반드시 협력적인 담화태도라고 보기에 어렵다. 담화에서의 협력은 담화라는 복잡한 함께놀이(Zusammenspiel)에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담화목적 달성을 것에 도움이 되는 행위와 태도 전체를 아우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다 연구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력을 담화참여자의 목적과 연관된 세 가지 입장 차이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입장차이로서 담화목적 달성을 정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협력개념을 토대로 4장에서는 실생활과 온라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양성의 담화행태의 차이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 4. 온라인 소통의 다른 모습

실생활 소통의 특성은 일정 부분 온라인 소통으로 계승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성 간의 담화 행태의 특성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행해진 소통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생활 소통과 다른, 온라인에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 간의 온라인 소통과 실생활 소통을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실생활보다 온라인상에서 이성 간의 대화가 보다 쉽게 시작되고 원활하게 진행된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통계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이성과의 소통이 실생활에서보다 쉽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224명의 응답자 중 27퍼센트가 특히 이성과의 담화에서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쉽고 성공적인 담화를 이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10대의 참여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성인이 이성과의 담화에서 온라인 소통이 더 편안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많은 여성화자들은 실생활 소통에서보다 온라인 소통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호작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화자 스스로 혹은 다른 여성화자가 실생활에서와 달리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일정하게 교대해가며 수행하고, 불확실하게 말하거나 묻는 말하기 방식 대신 자기주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sup>4)</sup>. 이것은 실생활에 비해 화자-청자의 역할 교대가 규칙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그래야만 하는 온라인 소통의 특성에 의거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경우 한 사람이 계속해서 화자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청자 입장에 머물 경우 경고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난다.

온라인 소통에 참여하는 담화참여자들은 불확정적인 담화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성간의 입장차이가 실생활에 비해서 미소하게 초기조건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팅이나 카페 활동 등 실시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통의 경우 이러한 조건은 소통의 시작과 진행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34세의 평범한 직장남성이 31세의 주부, 31세의 주부, 두명의 30대 직장여성, 27세의 여자 대학원생, 29세의 여성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 아무 거리낌 없이 끼어들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 즉시 담화에 참여하는 상황은 실생활 소통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Text35)의 남성 담화참여자는 실제 생활에서는 여성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

4) 설문조사의 내용은 '7.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시오.

누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한다.<sup>6)</sup> 텍스트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화의 내용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상황의 전개로만 보았을 때 별다른 어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담화는 특별한 주제나 구심점이 되는 주도적 인물이 없어도 몇 시간이고 지속된다. 실생활 소통에서는 담화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담화과정에서 타협과 협력에 의해 수정된) 담화목적 달성을 위하여 담화가 종결되므로 서로가 상대의 담화목적 달성여부를 끊임없이 타진해야 하는데 반해서 온라인 소통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담화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대화를 그만둘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역시 담화에 참가하기 위한 보다 편안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실생활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대화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보다 협력적인 대화진행이 가능한, 이러한 온라인 소통의 장점은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결핍으로 소외받는 계층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상당한 역기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성 간의 담화행태의 차이가 실생활에서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종 소통불능의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하나인 “다음 뉴스”에 실린 명절 증후군에 대한 기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100자의 의견”란에서 독자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쟁의 일부를 발췌한 Text4를 보면 양성 간의 입장차이에 따른 대립은 협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완화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이 되고 마침내는 담화참여자들이 이해와 타협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성간의 입장차이는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극히 낮은 담화 협력도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담화 외적 조건이 성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되어 있어도 담화참여자들의 협력도가 낮으면 소통의 양상은 양성 간의 입장 차이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각 참여자들의 담화목적 달성도도 극히 저조한 채로 소통이 종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ext4에서 남녀 참여자들이 발전적인 토론에 기

5) 본고의 “6. 담화전사자료”에 제시하였다.

6) 이 텍스트는 채팅담화에 직접 참여한 여성 참여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어서, 다른 담화참여자들에 대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여하지 못하고 결국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끝맺게 되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실생활과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양성의 소통양상을 담화분석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겠다.

## 5. 담화 분석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소통의 성차

지금까지 실생활소통과 온라인 소통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성의 담화적 관행을, 우선적으로 양적인 조사방식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실생활 소통과 온라인 소통의 차이,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양성의 담화적 관행 및 그 차이를 현상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식에 의해 양성의 소통방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각 소통상황에 따른 특수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례연구를 해야 한다. 즉 양성의 사회적 역할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담화상황이 대부분인 제도화된 담화들을 분석 자료로 삼는 사례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이 언어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각 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면서 풍부한 사례연구자료를 분석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특히 제도화된 담화에서(*institutionalisierte Gespräche*) 담화참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담화내용과 관행으로부터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례를 조사하고 제시하는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이 사례연구결과를 담화라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언어 이론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해 내는 문제가 남아 있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의 사례연구와 전사자료, 지금까지 논의한 소통 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담화를 참여자들 간의 목적 및 협력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구조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담화에서의 협력 개념을 토대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 5.1. 담화의 복잡성—상호작용의 역동적 구조

담화를 시작하고 이끌어가게 하며 전체구조를 구성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끝맺게 하는 동력은 담화 참여자들이 담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담화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담화참가자들이 설정하는 담화목적은 실제 대화를 분석해보면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참가자들은 상대방과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알아내거나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거나 그저 안부를 전함으로써 친분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 상대를 자극해서 화나게 하려 하기도 하고 상대가 나와 함께 슬퍼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며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바랄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바람은 많은 경우 복합적으로 한 화자의 담화목적을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담화의 목적을 인지적(kognitiv), 감정적(emotional) 그리고 상호작용적(interaktiv)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는 정신병리학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목적 외에 감정적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목적과 단순히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담화목적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담화목적이란 담화 참가자 간의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입장 차이(Perspektivendifferenzen)를 담화를 통해 각 참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풀어 쓸 수 있다. 앞에서 든 예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면, 내담자는 인지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이고 감정적으로는 혼란되고 저조한 상태이다. 또 상호작용적으로는 내담자로서 상담자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담화상대자가 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상담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내담자가 처한 실제 상황에 대한 상황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상담자로서의 담화상대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은 각자 담화를 통해 상대와 자신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담화에 임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설정한 담화목적에 동시에 도달한다면 담화는 아무런 문제없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끝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설정한 담화목적, 즉 최종적인 입장차이의 위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담화진행에서 두드러지는 언쟁이나 다툼, 당황하거나 울거나 혹은 같은 말이 반복된다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이상적인 진행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담화참여자들 각자가 담화 목적을 추구하는 강도나 도달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각 담화참여자가 상대의 담화목적, 그리고 목적달성도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조를 맞춰가는 노력이 담화의 목적달성도를 높이고 모두 만족하면서 담화를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담화에서의 협력이며, 상대방부터 충분한 협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담화참여자는 반발하여 자신의 협력도를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담화목적 달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각 담화참여자는 자신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목적달성도를 조절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간다. 담화 상황에서의 협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그라이스(1967)의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행위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담화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실제로 그라이스는 그의 협력원칙을 효과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에 한정시켜 고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7)</sup>

## 5.2. 담화분석의 입장에서 고찰한 양성의 담화행태

이제 앞서 살펴 본, 실생활 소통에서 나타나는 양성의 담화행태를 이러한

---

7) Grice(1967: 69): The conversational maxims, however, and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s connected with them, are specially connected (I hope) with the particular purposes which talk (and so talk exchange) is adapted to serve and is primarily employed to serve. I have stated my maxims as if this purpose were a maximally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this specification is of course too narrow, and the scheme needs to be generalized to allow for such general purposes as influencing or directing the actions of others.

시각에서 재구성해보고 그 복잡성을 파악해보자. 먼저 남녀 양성이 참여한 토론대화에서 남성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담화주제를 바꾸고 있는 실생활 담화 단면인 Text1을 보자. 이 담화단면은 담화의 위기적 국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통하고 있는 양성의 서로 다른 담화적 관행이 뚜렷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 눈에 띄는(auffällig) 장면이다. 통상적으로 토론담화에서는 인지적 입장차이의 효과적인 조절에 높은 비중을 두는 담화목적을 세우게 되고 다른 담화참여자도 그러할 것으로 가정하고 또 기대하게 된다. 즉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인지적 입장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감정적 입장차이 측면에서는, 각 참여자는 다소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자 하며 상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또 상호작용적 입장차이를 조절하여 일정한 화자청자 비율을 유지하고,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것은 토론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중 하나로서, 상대가 말을 할 때에는 경청을 하며 자신이 다시 발언권을 가져 올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남성화자 P는 이 단계에서 세 가지 입장차이에 대한 목표설정에서 다른 담화참여자와 조정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도 않는다. 특정 담화단계에서 다른 담화참여자들이 설정한 목적과 자신의 목적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 혹은 목적달성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 그 담화참여자의 협력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화자 P의 협력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담화참여자 중 이와 같이 낮은 협력도를 보이는 화자가 있을 경우 담화는 대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나머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담화목적 달성속도를 급격히 하향조정함으로써 협력도를 극도로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담화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게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나머지 참여자들이 자신의 담화목적이나 목적달성속도에 뚜렷한 변화를 주지 않고 중전의 태도를 유지하는데 그럴 경우 많은 담화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예로 든 담화단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이 단면에서는 다른 담화참여자들이 자신의 협력도를 급격히 높임으로써 담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한 실생활 담화에서 종종 양성 간의 소통양식의

대립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담화에서의 협력도와 목적달성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로써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담화목적 설정할 때, 담화상대와의 감정적 입장차이의 조절에 많은 비중을 둔다. 또 상호작용적 입장차이의 조절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담화행태를 고려하고, 요구되는 만큼 화자입장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전달하는 담화기능에 비중을 두는, 즉 인지적 입장차이의 조절에 큰 비중을 싣는 담화목적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감정적, 혹은 상호작용적 입장차이의 조절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성간의 담화는 종종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소통에 있어 파국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화행태는 결코 상황과 유리시킨 채 성적 특성과 결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성이 아님은 자명하다. Text2는 남성 상담자와 남성 내담자 사이에 일어난 상담담화의 단면을 녹취, 전사한 것으로서, 남성 상담자가 내담자의 설명의 사실여부를 따지거나 인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심정적으로 동조해 주는, 감정적 입장차이의 조절을 우선적 담화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화는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 만족을 나타내는 성공적인 상담담화로 끝맺었다.

실생활 소통에서 양성의 담화목적 차이에 기인한 협력양상의 차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담화행태의 차이는 온라인 소통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온라인 소통 참여자들은 앞서 고찰한 것처럼 이성 간의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끌어가기 수월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협력적이고 목적 달성도가 높은 소통 양상을 보인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양성의 담화행태의 대립적 양상은 극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온라인 소통에서 세 가지 입장차이와 관련해서 담화참여자들이 설정하는 목적, 즉 담화목적이 실생활 소통에 비해 성차가 적기 때문이라는 가설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실제 온라인 소통의 예를 분석한 결과와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온라인 채팅이나 그룹 게시판, 뉴스그룹이나 토론방에서의 소통실태를 보면 양성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나 상이한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담화태도의 차이나 장애가 실생활 담화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남성 담화참여자는 실생활 소통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담화에서 감정적 입장 차이를 조절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담화목적 설정한다. 또 상호작용적 입장 차이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발언권을 선점하려던 경향을 온라인 소통에서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온라인 소통에서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적절한 순서를 가로채었다더라도, 상대가 계속 자기표현을 하고 있을 때라도 “할 말”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협조적인 화자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화참여자들은 꾸준히 자신의 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며 상대는 그 말을 “듣는” 청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차 확인될 수 있었다.

### 5.3. 온라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전략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극소화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함께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장차이의 조절이라는 담화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는, Text4와 같은 온라인 소통의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의 원인을 협력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자면 담화상황을 둘러싼 소통의 환경을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담화의 경우, 소통 환경의 초기조건이 결정되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소통이 개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답글이나 꼬리글 형식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경우 몇 명의 어떠한 참여자가 소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참여할 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초기조건 불확정성은 담화참여자들에게서 높은 협력도를 이끌어낼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반면 매우 비협력적인 담화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 Text4와 같이 뉴스나 기타 칼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방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그 참여자들이 설정하는 담화목적이 사실상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편차가 큰 것이 아니다. 참여자들은 그 토론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지적, 감정적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토론에 참여할지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도 없으며 반드시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 즉 상호작용적 입장 차이에 있어서도 달성해야 할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목적달성도를 쉽게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상호간의 협력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 적은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토론이 진행될수록 각 참여자간의 입장차이가 강조되는 언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목적달성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벌어지는 논쟁은, 이 적은 입장차이를 가진 대상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장차이가 더 적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다른 참여자에게서 높은 협력도를 기대할 수 없는, 초기 조건이 불안정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담화목적 달성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담화 전략(Gesprächsstrategie)이다.

Text4를 보면, 이처럼 자신이 속한 성에 따라 견해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은 토론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논지를 피해 버리고, 타고난 성적 차이에 따른 입장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동성과의 입장차이는 실제보다도 더 적은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이성과의 입장차이는 논지와 상관없이 극대화된다. 다음에 제시한 내용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증후군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 간에 벌어진 논쟁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첫 번째의 토론 내용은 기사의 본래 취지나 문제시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문제를 여성 일부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글을 읽는 남성수용자들과 빠르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씌어진 것이고 두 번째 글 역시 여성 입장에서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문제의 한 면을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여성수용자들과의 감정적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여성수용자들은 극소화된 감정적 입장차이 때문에 다른 측면의 입장차이는 사소한 것처럼 잘못 판단하게 되고 쉽게 이 글의 글쓴이에게 동조하게 된다.

2) Text4 명절증후군에서:

6. 요즘 며느리들 영 틀려먹었어!-명절증후군 어느 못된놈이 지어낸 단어야!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 못된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감히 나올수있어,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황폐해가고 있단 말이야, 요즘 배운여자들이 더 나쁘다니깐

[중략]

8. 남자들도 놀고 먹지 말고 일 좀 하면 안돼?—맛벌이에 같이 돈벌고 같이  
운전해 시댁가 여자 혼자 일하면 불공평하지 않나

이러한 담화전략을 구사하는 소통적 관행때문에 실생활 소통상황에서라면 거의 벌어지기 힘든, 무리를 지어 원초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상대를 비난, 폄하하고 양성 간에 서로 비논리적인 비난을 반복하는 논쟁형태가 온라인에 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은 협력도가 극히 낮은 담화참여자들 사이에서 높은 협력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각 참여자들은 모두 초기조건인 입장차이가 적은 편이고 반면 협력도는 낮은 편이므로, 입장차이 중 특정부분을 과대하게 강조함으로써 적은 입장차이를 가진 참여자 중에서도 일부에게 ‘우리는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참여자들 중 이 전략에 의해 입장차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입장차이는 매우 적다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보다도 과소평가하는 반면, 다른 참여자들과의 입장차이는 과대하게 강조해서 평가함으로써 쉽게 논쟁을 벌이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초기조건이 불확정적인 것은 사실 인터넷채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왜 채팅방에서는 양극화된 논쟁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채팅의 경우에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는 토론방에 비해 오히려 주제유동성이 커서 참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거나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력적이고 원활한 담화가 진행되고 높은 목적달성도를 보이는 것은 참여자들이 입장차이를 조절하려 하는 담화목적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담화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협력도를 보이고 상대의 협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채팅을 통해 정보를 구하거나 친구를 사귀려 하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잡담을 나누려 하거나 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 자신이 설정한 인지적, 감정적 입장차이 조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세운 목적을 파악하고 도움으로써 그의 협력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비슷한 주제와 담화참가자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통이 협력도에 따라 전혀 다른 진행과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온라인 담화 역시 실생활 담화와 마찬가지로 협력도와 목적달성도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시스템(komplexes System)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측면이다.

## 6. 결론

실생활 소통에서 남녀가 각각 특징적인 담화관행을 보인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통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말 끊기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언어현상의 양성차이에 관한 자료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담화연구에서 연구 자료로서 접근이 용이한, 제도화된(institutionalisiert) 담화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미 남녀 양성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여성상담자가 남성내담자를 상대로 인지적 입장차이의 조절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담화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자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때문에 이런 담화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담화관행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양성의 담화적 관행을 고정적인 것으로 논의하기 힘들다. 또한 담화에서의 협력적인 태도는 단순히 호응을 잘 해주거나 말을 잘 들어 주는 등의 수동적인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담화에서의 협력개념을 재정립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담화의 역동적 구조를 간략히 재구성하면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양성의 담화관행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논의한 실생활 소통에서의 담화적 관행이 온라인 소통에도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온라인 소통의 다양한 실현양식을 고려할 때 매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소통형태를 다루었는데 먼저 인터넷 채팅에서는 양성의 협력적 태도가 실생활 담화에서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일어난 인터넷 채팅담화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남녀 양성의 협력양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협력 태도에 있어서 양성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따라 실생활에서는 이성과의 담화에 어려움을 느끼던 사람도 채팅공간에서는 활발하게 담화에 참여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편 정해진 주제를 놓고 불특정 다수가 담화기어를 하는 토론방에서는, 실생활 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

든 양성 간 입장차이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담화전략을 사용하여 토론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담화전략이 사용되는 경우, 담화 협력도가 크게 떨어지고 남녀 양성의 입장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통 수단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적합한, 이전에 없던 소통 양식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담화 관행, 담화 전략 등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비단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 소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통 수단이 변화하면서 꾸준히 관찰되어온 사실이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사실 모습을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온라인 소통에서 과연 양성의 실생활에서의 담화적 관행이 계승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직접 인터넷 소통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세운 가설은, 온라인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담화적 관행이 있고 그것은 실생활소통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나온 연구결과는 가설을 입증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연구의 중점과 방향성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담화자료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째로 의사소통의 양식을 규정하고 분류하기에는 그 종류와 양에 있어서 부족한 자료였다는 점을 시인한다. 많은 실제 담화 예(authentische Gespräche)를 검토하였으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변수를 갖추고 있는 담화는 한정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전사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밝힌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많은 자료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둘째, 실생활소통과 온라인 소통의 실제 담화 예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합당한 예를 같은 언어권에서 찾지 못하고 실생활소통은 독일어 상담담화를, 그리고 온라인 소통의 예로는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적합성 부분에서 문제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다만 상담담화는 일정 부분 형식성을 갖춘 제도권 담화(institutionalisierte Gespräche)이기 때문에 언어문화권에 따른 특성이 일상적 담화에서처럼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료로서 선택하였으나, 목적에 맞는 한국어 담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했을 것이다. 셋째, 담화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된 자료의 실제성(Authentizität)와 더불어, 담화 전체의 맥락성(Kontextualität)을 담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본 논문에서 상담담화의 일부만을 끊어서 연구에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대략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되었던 이 상담담화들을 전체 인용한다는 것은 일단 분량 면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가 전체 담화의 맥락을 통찰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담화 단면을 추출해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와 같은 연구방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실생활 소통의 예로 사용한 상담담화들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중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료들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담화들만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청취하고 분석한 다음, 일부 전사하여 정리한 자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소통에서 양성이 보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담화 관행을 설명하고, 담화분석적 입장에서 실생활 소통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온라인 소통의 이러한 양상이 실생활 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의 사회적 관계와 관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다시금 소통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려 한다.

## 7. 담화 전사 자료

Text 1: 여러 여성과 한 남성이 참여한 담화의 예 - Ich bin der Schönste

N: er wird also immer als ein wunder betrachtet weil er schon von der äußeren  
erscheinung so: hervorragend und so edel gebildet dass also seine adelige abstammung  
des is ja im mittelalter ä: a im immer eigentlich gleichgesetzt der äuß-Bere schein ja  
(fragend) je b:esser

P: m

N: und schöner geschmückt undund edler geformt desto höher die die:  
moralische qualität des einzelnen ne das war immer auf einer stufe  
das wird gleichgesetzt ne

- P: das wäre ich (leise)wenn wir im mittelalter lebe würde wär des wege meinem aussehen
- N: ha ha he he (lautes Lachen)
- O: ha he he he (lachend) du bisch der schönste
- N: der schönste  
des
- O: (lachend) nur is schöner he der isch gschminkt gell (frgend) ha ha
- P: eben de-
- N: des-
- P: alle sagen sie sind die schönste und nur bei mir stimmt\_s.
- O:  
(ironisch) äh

Text 2: 남성 상담자와 남성 내담자의 상담담화 예

- R: der war also (stottert) 3s3 ich ich also ich also ich sag ich sag mir immer der der **gesichtsausdruck** 3s3
- B: mhm
- R: die **augen** und das ich hab das alles **geseh:en** trotz au ich total blind bin sonst
- B: mhm mhm mhm also
- [...]
- B: ich will ihnen damit erstmal nur sagen dass ich ihnen **glaube**
- R: ja
- B: **wort für wort** glaube ich ihnen
- R: wissen sie (zitternd) äh ich finde 0 ich habe mich jetzt kann mal sagen die fünf jahre umgetrieben mit der
- B: ja
- R: ne drum immer und und ich ha:be mal wenn ich das den anderen mal erzähle un so weiter 0 ich habe ma mal den eindruck 5s5 3i3 es glaub mir niemand 5f5 3i3
- B: mhm
- R: ich habe schon ga:r nicht weiter geäußert und
- B: mhm

Text 3: 인터넷 채팅의 예-여성화자가 대부분인 대화에 참여한 남성화자의 태도<sup>8)</sup>  
(a: 31세 여성, b: 29세 여성, c: 34세 남성, d: 32세 여성, e: 32세 여성, f: 27세 여성)

- a            난 그림 c님이랑  
b            *f양이 배신하고 시집가모 식장에 애들 풀고 바닥에 드러누울겨에웃*  
a            사귄겨나 ㅋㅋㅋㅋㅋㅋ  
b            *어머 불륜이얏*  
c            ㅋㅋ  
a            불륜은 (비어)  
d            난또 학교에 있는지 알고  
d            떡볶기나 해먹자고 할라했더니  
e            음...  
d            바보~  
a            떡볶기나 해먹자고...-\_-  
e            얘기할때 없었구나,,  
b            *유부녀랑 좋각이잖아*  
a            그래도 내가 먹고 들어가지  
f            --,,--  
b            *아아아아아..*  
a            이 미모에  
c            맞아요 a님이 엄청 먹고 들어가요  
e            --,,--  
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빼졌다 c님 ㅋㅋㅋㅋ  
b            *어디 아프시오?*  
c            요리도 엄청 잘하시구  
a            나 살빼봐라 췧  
e            ㅋㅋㅋㅋ  
a            딱 주저쓰

---

8) 이 담화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 일어난 인터넷 채팅으로서 대화명을 지우고, 각 참가자의 담화기여를 다른 서체로 표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맞춤법이나 어법에 있어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밝힌다.

Text 4: 명절 증후군 (추석을 앞두고 명절증후군에 대한 기사에 부속된 토론방에 있는 담화기여들)<sup>9)</sup>

1. 큰 며느리들이 힘들지요-잘 해도 수고했던 말도 못듣고. 맘며느리를 이해하려는 가족, 친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요.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제사지내는 건 어떤지
2. 지니님-좋은생각이네요. 그럼 재산도 똑같이 나눠야겠죠? 받을건 큰아들이 다 받고 할 일은 나누자는 것들 많더군요
3. 재산 때문에 일 더해야?-그럼다가져...그리구 시부모님 모시구 제사지내 둘째들 딸들... 다해...큰며느리 쉬게

[중략]

6. 요즘 며느리들 영 틀려먹었어!-명절증후군 어느 못된놈이 지어낸 단어야!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못된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감히 나올수있어,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황폐해가고 있던 말이야, 요즘 배운여자들이 더 나쁘다니깐

[중략]

8. 남자들은 놀고 먹지 말고 일 좀 하면 안돼?-맞벌이에 같이 돈벌고 같이 운전해 시댁가 여자 혼자 일하면 불공평하지 않나

[중략]

10. 증후군이 있는 며느리는 친정으로-인생몇천년 산다고 명절때마다 증후군이니 뭐니 하며 지내나 즐거워야 명절이지 각자 자기 친정에 가는 방법도 좋다 애들은 가고 싶은 쪽으로 선택하고 억지로 조상 제사 해보면 뭘하나 추석이나 구정 그거다 농경시대의 명절이지 농사 안하고 중국것 수입해먹으면서 무슨 추석이니 명절이니 증후군이니..

[중략]

12. 가신님-살아생전 부모위해, 쌀을매고 황토흙에, 고갯길을 헤메이며, 그리운님 불러봐도, 가신님은 말이없네, 야속하오 야속허이, 내님위해 천리길을, 이한육신 재가되어,

## 8.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 224명

### 1. 연령대

- 10대 84명
- 20대 98명
- 30대 32명
- 40대 10명

---

9)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토론자들이 쓴 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임을 밝힌다.

II. 성

여성 122명

남성 102명

III. 이성과 온라인에서 담화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다 61명 27%

그렇지 않다 70명 31%

그 외 (다르지 않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등) 93명 42%

IV. 실생활소통에서 담화하기 어려운 상대

여-남 51명

여-여 23명

남-여 26명

남-남 14명

별로 차이가 없다 110명

V. 온라인 소통에서 담화하기 쉬운 상대

여-남 19명

여-여 22명

남-여 27명

남-남 14명

무응답 혹은 양성의 차이가 없다 142명

VI. 온라인 소통에서 여성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남의 말을 잘 들어 준다.
2. 실생활에서보다 차분하게 대화한다.
3. 말이 많다.
4. 그 외-내숭이 많다. 귀여워 보이려 한다. 의외로 욕을 잘 한다 등

VII. 나는 온라인 의사소통을 할 때 실생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남자

1. 상담 등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기가 더 쉽다.
2. 실제 생활에서 말할 때보다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
3.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여자

1. 상담 등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기가 더 쉽다.
2.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
3. 실제 생활에서 말할 때보다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

### 참고문헌

- 송경숙 (2002): 담화분석-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최명원 (2002): 언어와 성, 실린곳: 독일문학 84집, 한국독어독문학회.
- Cameron, Daborah (1986): Feminism and Linguistic Theory, (이기우역(1995):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 Christa M. Heilmann (Hg.) (1995): Frauensprechen-Männersprechen. Geschlechtsspezifisches Sprechverhalten. München; Basel; Reinhardt.
- Gräbel, Ulrike (1991): Sprachverhalten und Geschlecht. Eine empirische Studie zu geschlechtsspezifischem Sprachverhalten in Fernsehdiskussionen. Pfaffenweiler.
- Grice, H. P. (1967): Logic and Conversation. In: Davidson, Donald/ Harman, Gilbert (Hrsg.) (1975): The Logic of Grammar,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 Herbig, Albert F. (1995): Frauen und Männer im Gespräch. In: Christa M. Heilmann (Hg.)(1995).
- Kunsmann, Peter (2000): Gender, Status and Power in Discourse Behavior of Men and Women, In: Linguistik Online, ISSN 1615-30.
- Samel, Ingrid (2000): 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Sprachwissenschaft, 2., überarb. und erw. Aufl, Berlin. 권영수&김종수 옮김.
- Schmidt, Claudia (1988): Typisch weiblich - typisch männlich. Geschlechtstypisches Kommunikationsverhalten in studentischen Kleingruppen, Tübingen.
- Schnorrenberg, J E. (1995): Ich als Sprechende(r)-Dimensionen möglicher Rollenerfahrung. In: Christa M. Heilmann (Hg.)(1995)
- Schroeder, Peter (1994): Perspektivendivergenzen in Beratungsgesprechen. In: Nothdurft, Werner/ Reitemeiner, Ulrich/ Schroeder, Peter (1994): Beratungsgespraech: Analyse asymmetrischer Dialoge, Tuebingen.



- Thimm, Caja (1995): Durchsetzungsstrategien von Frauen und Männern: Sprachliche Unterschiede oder stereotype Erwartungen? In: Christa M. Heilmann (Hg.)(1995)
- Trömel-Plötz, Senta (1983): Frauensprache-Sprache der Veränderung. Frankfurt a. M.: Fischer.

## Zusammenfassung

### **Die Gesprächsverhalten von zwei Geschlechtern bei Online- und Offline-Kommunikation aus der gesprächsanalytischen Perspektive**

Lee, So-young(Seoul National Univ.)

Bei verschiedenen Gesprächen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sind mehrere Unterschiede in Gesprächsstrategien und -verhalten des jeweiligen Geschlechts zu beobachten. Herkömmlichen Ansichten nach führten Männer Gespräche mit Frauen eher dominativ, während Frauen eine deutliche Vorliebe für kooperativ verlaufende Gespräche zeigen. Um die Gültigkeit dieser Perspektive zu prüfen, wurden in dieser Arbeit insgesamt zwölf Beratungsgespräche herangezogen. Daraus ergab sich, dass Männer im Gespräch statistisch häufiger die anderen Gesprächsteilnehmer unterbrechen. Da ein Gespräch ein komplex vernetztes soziales Geschehen ist, sollte diese Statistik bei der Bestimmung der Gesprächsverhalten von zwei Geschlechtern k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en. Im Anschluss daran habe ich mich mit Hilfe einiger im Internet gesammelten Daten, mit den Gesprächsverhalten bei der so genannten Online-Kommunikation befasst. Bei der Online-Kommunikation lassen sich zwei kontrastive verbale Umgänge der Geschlechtern beobachten, nämlich ein reibungslos ablaufendes IRC(Internet Relay Chatting) und eine auffällige Debatte, die mehrfache Konflikte zwischen den Beteiligten zeigt. Um diese Phänomene auf der Basis der Gesprächsanalyse zu erläutern, werden vor allem das Konzept der Kooperation beim Gespräch und die Dynamik der Gesprächsstruktur erneut begriffen. Schließlich werden die unterschiedlichen Gesprächsverhalten von Frauen und Männern folgend wiedergegeben: Bei realen Face-To-Face-Gesprächen setzen Frauen den Schwerpunkt auf die emotionale und interaktive Kooperation, während Männer ihn auf die kognitive Kooperation setzen. Dieser Sachverhalt ändert sich aber bei der Online-Kommunikation. Auch Männer halten die emotionale und interaktive Kooperation für

wichtig und führen mehr kooperative und reibungslose Gespräche mit Frauen. Doch in einer Debatte um ein Thema verhält sich jeder Beteiligte anders. Die meisten benutzen die Strategien, die den geringen Unterschied zwischen den Geschlechtern in Anfangsbedingungen vergrößern, und gleichzeitig die individuellen Unterschiede zwischen demselben Geschlecht verschleiern. Dadurch kann eine Debatte zwischen Geschlechtern in Streit ohne Kompromisse geraten.

[검색어] 소통, 담화분석, 성차, 상담담화  
Kommunikation, Gesprächsanalyse, Gender, Beratungsgespräch

이소영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 연구센터

balkon@snu.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27

논문 심사일: 2004. 11. 28